

한국인과 중국인의 공동창업기업 성장의도에 대한 연구

김아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문준환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재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사회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개인이 모여 구성되기 때문에 그 집합 또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더욱이 글로벌화와 타 국가의 언어 습득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국가로 유학을 가는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교류가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창업을 하고자하는 경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구성된 공동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하여 보다 심도 높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중에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강조한 단어 등을 주요 키워드로 삼았으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타 키워드들을 획득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가 상이한 경우의 공동창업에서 자기수용, 문화적 거리, 기업가정신, 지식이질성, 성장의도가 매우 큰 키워드임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기수용, 문화적 거리, 기업가정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성장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의 공동창업의 경우 다른 지식을 가짐으로 인해 더 넓은 의사결정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차이가 너무 상이할 경우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식이질성은 각 관계들에 있어서 역 U 자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명제를 설정하였다.

핵심주제어: 공동창업, 자기 수용, 문화적 거리, 지식이질성, 성장의도, 기업가 정신

1. 서론

‘세계는 하나다.’라는 말은 과거나 현재나 유효한 문장이다. 이는 아주 먼 미래에도 적용될 것이다. 사람이 나라를 오고가 는 것을 넘어서 기업까지도 나라를 오가며 창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국적 혹은 인종이 모여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시가총액 10위의 기업들 중 반절이 단일 창업가가 아닌 공동창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동창업의 경우 단일창업에 비하여 목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고려하는 요소들이 더 많아 보다 폭넓은 접근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확장시키고자하며 그 확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 이해의 일환으로 먼저 각 나라의 창업관련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은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창업에 대한 순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창업부문에서 한국은 ‘17년도에는 9위, ‘18년도는 11위, ‘19년도는 22위가 하락하여 33위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17년도에는 93위, ‘18년

도에는 28위, ‘19년도에는 27위로 최근에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전의 평가결과를 보면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 및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창업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 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우진(2017)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 정책은 창업생태계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증진시키고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따라서 산업이나 시장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지지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창업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의 경우는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거나 대학생 창업 동아리와 창업교육과정을 연계, 창업교육 패키지, EXIST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의 창업환경은 먼저, 국가적으로는 전반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 관련 공공서비스, 시스템구축을 통한 편의성증진, 지원의 일체화, 교육의 전문화 등을 강조하여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산업이나 시장 부분에서는 풍부한 인적자원이나 제조능력, 파이프릿 제품 및 서

* 주저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ahyunk@sogang.ac.kr

** 교신저자,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jhmoon1106@sogang.ac.kr

*** 공동저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jblee@sogang.ac.kr

· 투고일: 2020-02-22 · 수정일: 2020-05-13 · 게재확정일: 2020-06-04

비스의 구축이 용이하고 창업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대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의지와 실현성이 높으며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자금 지원, 윈스톱 서비스, 창업 인큐베이터 등)이 존재한다.

한국과 중국의 창업관련 정책들을 비교하여보면, 한국은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하고 확장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은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교육, 패키지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미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관한 인지도나 실현성이 높은 상태로 교육,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 중에 있다.

한국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으로 유학하는 유학생 규모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16만 명의 유학생이 한국으로 왔다. 2009년에 유학생이 약 7만 5천 명¹⁾임을 감안하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비중은 약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교육학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원유학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유학생들의 유입은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학습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을 배우는 것 이외에 한국에서의 취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취업 혹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현이 어려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하는 창업을 달성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공동창업을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창업은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이며 국외의 사례에서도 창업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창업을 하려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배경, 개인적 요인, 상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김홍, 2012). 만약, 대학생들 중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다른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더 좋은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확장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사고방식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방향에 있어서도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된 요인들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로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국적이 상이한 공동창업에 어떠한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 질문 1번은 ‘다른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창업가들이 공동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의 연구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두드러지게 차이를 가질까?’이다. 해당 질문은 기존의 공동창업의 연구가 단독 창업 등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차이부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 질문 2번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공동창업 시에 어떠한 요인이 성장의도에 영향을 미칠까?’이다. 공동창업 중에서도 국적이 다른 경우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이후에 어떤 요인이 성장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국가의 차이를 보면, 중국에서 창업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더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방향으로 창업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공동창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후 동일 사례로 창업을 하는 경우 고려해야할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공동창업이라는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심층 높은 인터뷰를 통해서 핵심 개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단독창업과 공동창업 관련 기존연구

전 세계의 증가총액을 기준으로 10대 기업 중에 5개의 기업이 공동창업을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동창업 관련 연구보다 단독창업을 한 경우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공동창업 관련 특징에 관련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공동창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을지라도 대부분 창업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이재운 외, 2017). 따라서 단독창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공동창업의 논문들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확인하여 본 연구에 맞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해당 연구에서 다룬 대상들은 기존의 창업에 미치는 요인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할 뿐만 아니라 사회, 기술 등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각적인 관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창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표 1>처럼 나타낼 수 있으며 각 연구에 대한 대상은 대부분 한국인이나 중국인 창업가들의 연구이다. 단독창업의 경우 어떠한 요인들이 창업 의도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 논문들을 참고하였을 때, 해당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역량, 지원, 개인적 특징, 태도, 규범, 외부적 환경 등 다양한 관점과 자원 등의 차원에서 연구됨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단독창업에서 나타난 논문 중 박경석·하규수(2014)의 논문의 경우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 설정한 독립

1)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의 데이터

<표 1> 기존 창업관련 연구

대상	저자	독립변수	조절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단독창업	1	인태욱 외(2019)	기업가적 역량	-	창업지원제도	창업성과
			기술적 역량			
			관리적 역량			
	2	양준환(2015)	교육적 지원	-	-	창업의도
			지각된 구조적 지원			
			지각된 관계적 지원			
	3	양준환·침희(2015)	기업가 정신	-	자기효능감	창업의도
	4	이선호 외(2015)	창업자 혁신성	-	연구개발역량	경영성과
			성취욕구			
			사회적 적응력			
5	악명 외(2014)	개인의 태도	국적 (한국/중국)	-	창업의도	
		주관적 규범				
		인재된 행동의 통제	전공 (컴퓨터/경영)			
6	박경석·허규수(2014)	성취욕구	사회적지지	-	창업의지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				
		창업동기				
7	정대웅·침희(2011)	창업에 대한 기대	-	창업	성장의도	
8	Wu(2007)	기업가정신 지원	-	동적 역량	창업성과	
		외부 파트너의 협력의지				
9	Huang et al(2012)	설립자의 네트워크	-	비즈니스 네트워크 조직적 혁신 (비즈니스네트워크 매개)	조직 성과	
		설립자의 인적자본				
대상	저자	연구내용				
공동창업	이재운 외(2017)	개인특성관련 다양성 필요영역		업무추진 관련 다양성 필요영역		
		외향성 / 상대의견 수용 / 낙관주의 / 위험감수		업무 관련 의견 / 속도 중시 / 시간관점 / 큰 그림 중시		

변수들이 모두다 성과나 의도, 의지 등에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인과 중국인의 그룹비교 시에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의 경우(악명 외, 2014)에 주관적 규범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서로의 문화나 관습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볼 때 한국인과 중국인의 특성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두 국적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전진할 경우 기존 연구와 다르게 조금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공동창업관련 연구는 공동창업과 단독창업을 비교(이지연 외, 2018)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창업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연구(차민규·이상명, 2018), 공동창업의 경험이 기업가적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박노운, 2016) 등이 있다.

해당 논문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국적이 상이한 공동창업이 성장하기 위한 요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연구는 제외하고 조사한 결과 이재운 외(2017)의 연구가 가장 부합하였다.

해당 논문은 공동창업에 대해서 개인특성과 업무수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탐색 및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는 공동창업의 경우 다양성이 키워드로 작용하였으며 개인특성과 관련한 다양성은 외향성, 상대의견수용, 낙관주의,

위험감수 등이 세부영역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업무추진과 관련한 다양성에서는 업무 관련 의견, 속도, 시간에 대한 관점, 업무와 관련된 큰 그림에 대한 시각이 세부내용으로 포함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공동창업에 있어서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국적이 다른 창업가들의 공동창업일 경우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공동창업에 있어서 개인적인 중요 요인(교육, 동기, 태도, 다양성 등)과 상호 개인적 특성 요인(전공, 사회적지지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비교 가능한 기존 연구(이재운 외, 2017)는 창업팀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영진의 구성, 내부적 역동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다른 국적의 창업가들이 모인 기업들로 한정하고 이 기업들의 성장의도와 관련된 특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에 연구를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상기의 요인들에 대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하여 직접적인 요인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3.1 반 구조화된 인터뷰 및 연구대상

연구문제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선택하였다.

반 구조화된 인터뷰의 경우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혹은 수정한 질문을 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Barriball & While, 1994). 반 구조화된 인터뷰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시작하여 공동창업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 상호간의 특성 등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공동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에게 인터뷰를 질문하였다. 해당 기업들은 창업한지 약 1년 정도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

해당 인터뷰를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 질문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해당 질문들은 총 3유형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창업자, 창업, 개인의 관점에서 질문하였으며 답변에 따라서 추가로 질문하며 진행하였다. <표 2>를 보면 큰 질문(Q1, Q2, 등)의 경우 이미 구조화한 부분이며, 각 질문에서 유동적으로 질문한 부분은 하위내용이다.

<표 2> 인터뷰 내용

번호	질문
Q1.	귀사의 창업 멤버(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동안의 인원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Q2.	귀하께서 타 멤버(들)와 공동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표님은 직원 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Q3.	귀하께서는 다른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멤버(들)의 창업에 있어서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장점으로 인하여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크게 작용하나요? 그렇다면, 해당 단점으로 인하여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크게 작용하나요?
Q4.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귀하와 타 멤버(들)와의 의견조율시 어떤 분위기 혹은 상황에 많이 노출되나요?
Q5.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국적이 상이한 경우의 공동 창업 시 어떠한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6.	창업가들끼리는 익숙하실 기업가정신이 창업에 필요한 요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의 창업 경험을 토대로 해당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께서서는 기업가 정신 말고 창업에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질문들은 이재운 외(2017)를 기반으로 재구성함.

해당 질문들은 인터뷰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여 인터뷰 전에 미리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전달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각 인터뷰 진행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1회가 진행되었다.

3.3 인터뷰 분석

한국인 창업가와 중국인 창업가가 공동 창업한 H사와 E사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현재 H사의 경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E사의 경우 제조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Colaizzi(1978)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해당 방법은 중요 진술을 기술하는 방식이며 먼저, 해당 인터뷰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연구 목적과 부합하는 내용들만을 다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내용들을 일반화가 가능한 설명(단어)으로 변경하여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내용에 대해서 유사한 개념끼리 다시 분류하였으며 이를 포함할만한 공통적 개념을 선정하였다. 전자의 분류 시에는 두 사례 모두 언급한 내용을 우선하여 서술하였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소개를 제외하고, 연구 목적과 부합하는 내용들만으로 다시 구성하여 결과를 작성하였으며 국적이 상이한 경우의 창업이 성장하고 성과창출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된 단어는 의사소통(언어 및 의견 조율)과 신뢰였다.

사실상 유학해보지 않았던 친구랑 창업을 하였으면 이미 소통이 되지 않아서 깨졌을 거예요. 유학생이라서 문화적 수용력이 커서 의사소통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해요(H사).

창업이전에 충분한 교류가 필요하고 서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고 결국엔 이 신뢰가 창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거의 대부분의 요소로 작용해요(H사).

창업초기에는 누구든지 좋은 관계로 시작하지만 창업을 하고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든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결하는 방식이 맞아야하고 이는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해요(E사).

저는 한국에서 11년 동안 살아서 그래도 한국어나 문화를 잘하고 아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하니 언어에 대한 표현 방법 등의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에요(E사).

상기의 내용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서로 다른 국적을 소유한 창업가들이 공동창업을 하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창업을 하는 창업가도 타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창업가는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인차원의 이해를 넘어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문화에 있어서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인 창업가도 한국인 창업가보다 더 많은 부

분을 고려하여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성과에 대한 장기 혹은 단기 지향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인지 성향이 그런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집단주의적인 저의 성향과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또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원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H사).

성과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서로가 맞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냥 개인적인 특성에서 타고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잘 맞을수록 좋고 이를 기반으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인드가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가고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E사).

해당 언급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의 시각이 조금 다른 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점들이 있는 창업가들과 함께 한다면 기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는 성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각 기업의 구성원의 경험이나 경력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뒤를 잇는 요인으로는 유사한 지식이었는데 이 지식은 성장배경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적 학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내수시장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와 이해도가 달라서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고 이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도 빠른 피드백을 원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H사).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동일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진전해야 해서 비슷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이죠(E사).

비슷한 지식 그러니까 수준인데 이게 학위적인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워서 본인이 습득한 지식, 학교에서 배운 지식 그러니까 본인이 성장하면서 겪은 인생의 학습의 사고결과가 비슷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창업가들과는 이러한 부분이 거의 없어서 매우 좋아요(E사).

문화적인 차이가 커서 창업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건 사실이죠 학교에서도 이제 막 유학 온 중국학생들과 같이 프로젝트 하기도 어려운데 나중에 가면 그래도 서로 이런저런 부분이 공유되다보니 나아지는 것 같아요(H사).

사실 중국인을 채용할 생각은 없어요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적인 업무방식을 잘 알고 있고 한국어와 중국어 등은 기본이 되어야 해요 이 부분이라도 충족된다면 서로 느끼는 차이가 그래도 줄어들 테니까요(E사).

공동창업자와의 나이차이가 많이 나오 그런데 이런 연륜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의 공동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이나 이와 관련된 연륜에서 나오는 것들이 매우 도움이 되죠(E사).

상호간의 지식에 대한 상이성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경향보다는 이미 맞추어진 상황에서의 기업 발전과 전진에 대해서 더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만약, 서로 상이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조율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결국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즉, 지식에 대한 이질성은 상호 개인적 차원에서 발현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창업자에게 중요한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정말 필요해요 장기는 단기든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도 동력이 되고 이는 곧 기업의 미션과 비전과도 연결되는 일이기예요 그리고 창업이라는 결실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션과 비전은 인내라고 생각하니까요(H사).

회사리더가 기업가정신이 없으면 어디로 이끌어야하는지도 모르게 됨으로 이는 꼭 필요해요 아울러 기업가정신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이 개념을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업을 여는 순간 이미 기업가정신이 함양된 거죠 저는 창업자가 자기가 하는 창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E사).

기업가정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언급하였지만 기업가정신이 성장과 반복된다고 하는 점과 기업가정신은 심적인 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이하였다. 구체적으로 H사에서의 기업가정신은 성장이 되면 이를 발판으로 다시 기업가정신이 굳혀지며, 굳혀진 기업가정신을 통해서 다시 성장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반대로 E사의 경우는 기업가정신은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는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가정신은 창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 대해서는 모든 창업가들이 동의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기업가정신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독립부분인지 종속변수인지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다음은 국적이 상이한 부분으로 인한 장점 혹은 단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창업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중국의 판시문화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문화예요 중국은 체면 때문이라도 소비를 해야 해요 한국은 사업을 하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반해 중국인들은 상호관계 연결에 대한 상부상조라는 느낌이 있어

서 서로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H사).

창업멤버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정확하계는 모르지만 한국적인 부분은 다 같이하자! 적인 집단적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데 비해서 개인주의 성향이 좀 있어서 어렵지만 공동창업자가 중국인이어서 기업이 서비스하는 대상인 중국인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H사).

수학에서도 교집합이 있고 합집합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하나면요, 합집합으로 하면 영역이 넓어지죠 그래서 의사결정 할 때도 어떨 땐 더 정확하고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한국적 사고를 중심으로 중국적 사고를 첨가하는 거죠 만약 시장을 키워서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면 중국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적 사고를 첨가하는 거고요(E사).

국적의 상이성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강조한 사례도 있었으며 문화적 차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볼 때, 문화적 거리는 개인이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상이한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적 거리가 상호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가 아닌 타인과의 소통차원에서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창업기업 전에 탈북민들과 창업경험이 있어요 그전의 경험 때문에 제가 수용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높아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저의 태도에 대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고민하고 타 레벨에 맞추어서 다시 비교하고 적용해요 그리고 이걸 공동창업자도 유학생활 때문에 수용력이 높다고 생각하고요(H사).

저는 제가 20년이 지나도 완벽하게 한국인과 똑같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의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요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해요 즉, 후천적으로 변경하는 거죠(E사).

국적이 상이한 부분을 떠나서 개인적인 성향과 관련된 인터뷰에서는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통해서 타인과의 화합이나 단결을 위해서 노력하고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유학시절의 상황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창업가들에게 질문지의 질문 내용 이외에 추가하여 질문한 내용 중에서 성장에 대한 창업가들의 생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건 돈이랑 네트워크 팀빌딩이죠 창업자들간의 신뢰를 통한 관계적 차원에서 팀빌딩이 중요한 부

분이라고 생각해요(H사).

무엇보다 인력이 중요하죠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거나 그 사람이 무언가를 못하고 있다면 새롭게 가르쳐야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야하니깐 CFO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다양한 분야를 함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E사).

기업에 있어서 성장은 매우 중요하죠 일단 창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시점에서부터 기업을 설립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겠다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고 이걸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즉, 그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기업이 성장할수록(H사).

창업가들은 성장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기업차원에서의 인적관리를 공통적 요소로 언급하였으며 이외에도 자금, 네트워크, 전문지식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정리한 인터뷰내용을 살펴보면, 창업자들은 기업에 성장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업이 처한 문제 혹은 국적이 상이한 경우의 문제 등을 극복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분석 결과 및 개념정의

Colaizzi(1978)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진행해본 결과 인터뷰 내용들을 관점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하고 각 관점에 따라서 1개에서 3개의 키워드를 발췌하였으며 각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가장 잘 부합하는 개념들을 <표 3>처럼 나타내었다. 해당 개념들은 총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3> 인터뷰결과 정리

관점분류	1차 분류	개념
공동창업에 있어서의 개인적 중요변수	의사소통	자기수용
	신뢰	문화적 거리
	성장	성장의도
상호 개인적 특성 변수	유사 지식 필요	지식이질성
창업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특성변수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공동창업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중요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자기수용과 국적이 다른 창업유형임으로 연구특성에 맞는 문화적 거리를 선택하였다. 또한, 상호 개인적 특성 변수로서 지식에 대한 이질성에 대한 개념을 획득하였다. 창업에 있어서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요인들은 모두 기업의 성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장의도를 넣었다. 해당 개념들은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해당 연구를 진행하고자하였으며 관련된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수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오랫동안 이어져왔으며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수용은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든 부분에서 긍정 혹은 부정적인 부분까지를 모두 포함한다(Ellis·Harper, 1979). 즉,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본인자체를 이해하고 타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나 비교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쉽다(임전옥·장성숙, 2012). 해당 개념은 Rogers(1950, 1961)에 의해서 발전되었으며 Bill et al(1951)은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한 정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수용이 높으면 본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수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기수용이 낮으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뿐만 아니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한다고 하였다(Ryff, 1989).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을 본인의 약점이나 강점과 관계없이 본인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두 번째, 문화적 거리는 사실 국제적인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문화 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말한다(Samovar et al, 1981). 구체적으로는 문화 규범과 가치관의 차이라고도 정의하며(Hofstede, 2001, Kogut & Singh, 1988), 지적 자율성이나 영향적 자율성, 위계 등을 포함하는 차이라고도 이야기한다(Schwartz, 1992). 즉, 문화의 차이는 상대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문화가 유사한 경우와 문화의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일 때, 동일한 자극의 반응이 유사 혹은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김유경, 2004). 해당 개념은 관리자가 전략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이끈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Zhou et al, 2004). 이처럼 기존의 문화적 거리는 기업의 국제 전략 등으로 이용되는 개념으로 국가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현재는 개인적 수준에서도 Hofstede의 문화 차원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Oyserman et al, 2002). 기존의 문화적 거리의 개념을 본 연구에서는 상호간의 권력,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 장기지향성에 대한 차이라고 정의하였다.

세 번째, 창업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특성변수이자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업가적 정신을 변수로 두었다. 기업가적 정신은 20세기에 Schumpeter(1942)와 Kirzner(1973)가 학술적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재정의하였다.

Schumpeter(1942)는 기업가적 정신을 새로운 상품이나 생산 방법을 도입하여 경제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자로서 기업가적 정신을 정의하였다. Kirzner(1973) 또한 기업가적 정신을 기업가는 현재 시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수익에 대한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아울러 기업가 정신은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며 해당 개념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기업가 정신을 개인적 차원으로 볼 것인지 혹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방위적(대상 및 국제적 분

석)인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분석하고 정의한 배종태·차민석(2009)은 기업가정신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기회를 획득하는 사고 및 행동방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혁신성이 낮은 개인은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반면에 혁신성이 강한 개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할 수 있는 창업활동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박인 외, 2017). 또한 Hisrich & Peters(1986)와 Lumpkin & Dess(1996)는 진취성을 새로운 벤처를 창업하는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으로 보았다.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해당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을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기회를 잡고자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네 번째, 공동창업자의 상이한 요소로서 지식이질성을 고려하였다. 먼저, 이질성은 팀 조직의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하며 이는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될 때는 다양성으로도 확장하여 해석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Campion et al, 1993). 그러나 이질성이 상호간의 작용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uzzo, 1996). 본 연구에서는 이질성의 많은 요인들 중에서 국적이 다른 창업자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인터뷰를 통해서 사회적 교육, 학문적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학습지식에 대해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이질성을 선정하였다. 지식이 질성이란 멤버들 간의 지식적 차원에 있어서의 차이(Pelled et al, 1999)를 말한다. Campion et al.(1993)은 과업에 연관되어있는 기술, 경험, 능력이 다양한 정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과업에 대한 인지부터 성과까지에 대한 과점이 다를 수 있다. Pelled et al(1999)은 직무 관련 이질성은 과업갈등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사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지식이 상이할 경우 특히 더 어려움이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이질성을 창업자들 사이에서 의사결정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험, 배경, 전문성에 대한 차이정도라고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장의도를 설정하여 명제를 설정하였다. 성장이란 인간의 경우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이 있으며 외적인 부분이나 내적인 부분의 성숙을 말한다. 기업에 있어서 성장은 내·외부적 관점, 개인의 특성에 대한 관점, 성장단계 관점으로 분류가능하다고 하였다(박동수·구연희, 2007). 내·외부적 관점이란 전략적인 부분으로 구조나 과정, 환경이 주요 관점이라고 하였으며 개인특성에 대한 관점은 경험과 교육수준, 성취욕구, 희생, 동기부여 등이 주요 관점이라고 하였다. 성장단계 관점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주기이론을 조직에 적용시켜 확인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에 대해서 내·외부적 관점으로 정의하였다.

IV. 연구모형설정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한 총 5개의 개념들을 가지고 총 6개의 명제를 구성하였다. 총 5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인터뷰 내용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자기수용과 문화적 거리, 기업이 정신을 성장의도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해당 관계에 있어서 지식이질성의 정도에 따라서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를 설정하였다.

먼저 설명할 명제 1은 자기수용과 성장의도에 대한 관계이다. 자기 수용은 본인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개념인데 창업가가 자기 수용이 높은 경우 기업에 위협이 닥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자기수용은 이전에 자기이해가 기반이 되어야한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존재해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게 된다. 만약,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이전에 생각하고 이를 이해해본 경험이 없어서 수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박상환 외(2016)의 연구에서 높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수용도 높다고 하였다. 높은 자아 개념이란 본인 스스로가 신체적, 사회적 측면 등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이해를 말한다. 해당 연구에서도 보이듯이 높은 자아개념은 자기수용도도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자기수용이 높으면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수용이 높으면 성장과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강희숙·이진현, 2019). 즉, 본인에 대한 믿음과 본인이 지닌 장단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창업가일수록 성장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높은 자기수용은 기업의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명제 1을 설정하였다.

Proposition1. 높은 자기수용은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화적 거리는 상호간의 권력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적 성향, 개인주의적 성향, 장기지향성에 대한 태도이다. 문화적인 거리가 크면 기업내부의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남현정·임석준, 2017) 문화적 거리는 기업의 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에 대한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적 거리는 특정 상황에 있어서의 태도이다. 만약, 창업가의 상이한 국적으로 인하여 의견 충돌의 발생이유가 개인의 성장배경 때문에 발생하였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해야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판시문화가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상이함 때문에 서로간의 화합이 제대

로 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즉, 문화적 거리가 발생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상호간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감소시키려고 한다(Kogut & Singh, 1988).

인터뷰에서 나타난 창업자간의 다른 국적으로 인한 문화적 거리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문화적 거리가 낮을수록 서로간의 화합이나 이해도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는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화적 거리가 낮으면 기업의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제 2를 설정하였다.

Proposition2. 문화적 거리가 낮으면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가적 정신은 창업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관계없이 기회를 잡고자하는 성향인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의 최고경영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인이다. 기업이 정신은 기존 혹은 신규시장에서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March, 1991)하며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 강화함으로써 의지를 올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D'Aveni et al, 1990).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 기업역량에도 영향(김광현·동학림, 2019)을 미치며 창업가가 아니라도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있는 조직원은 조직에 대한 몰입이나 직무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어져왔다(장해민·김경환, 2019). 아울러 기업가 정신은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박동수·구언희, 2007)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대희·진창현, 2016).

인터뷰에서도 모든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기업가정신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기업가적 정신에 대해서 창업의 프로세스 중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기업가적 정신은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높은 기업가적 정신은 기업의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명제 3을 설정하였다.

Proposition3. 높은 기업가적 정신은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은 모든 사람마다 학습의 기회가 다르고 만약 동일한 내용을 보더라도 개인마다의 관심사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 개인별, 국가별로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지식이질성은 멤버들 간의 교육이나 경험 등에 의해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각자의 선호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반대로 지식이질성이 높

음으로 인해서 각자의 관점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시에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Stasser, 1992). 따라서 지식이질성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 상이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나 이 정도가 너무 높아질 경우 개인이 상대방을 수용할 범위를 벗어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평균이상일 경우로 잡아서 평균이상일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평균이하일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인터뷰에서도 언급하였던 내용들로 지식의 상이한 정도는 상대적인 수치이나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급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에 절대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자기수용과 성장의도간의 관계에서는 창업자들의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상호간의 지식이 상이하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오히려 다른 관점까지 고려하여 한국적 요소와 중국적 요소를 결합하여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의 이질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자기수용이 강하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지식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면 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공동창업자들끼리의 지식에 대한 이질성의 정도가 적을수록 자기수용과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수용과 성장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적 거리와 성장의도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지식이질성의 영향인데 상호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지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문화적인 차이는 원래의 타고난 성질에 대한 특성이라면 지식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차이를 비추어 보면, 문화적 거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지식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지식을 가지고 관점을 확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후 지식의 상이성이 너무 높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공동창업자들끼리의 지식에 대한 이질성의 정도가 낮으면 문화적 거리와 성장의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정도가 높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과 성장의도의 관계에서의 지식이질성도 역 U자의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가정신이 높으면 추진력과 위험에 대한 감수성도 높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이 어느 정도 상이함에 있어서는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공동창업의 경우에 지식 이질성으로 인하여 서로 추진하려는 목표에 대한 다른 시각에 도달할 경우 오히려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공동창업자들끼리의 지식에 대한 이질성의 정도가 낮으면 기업가 정신과 성장의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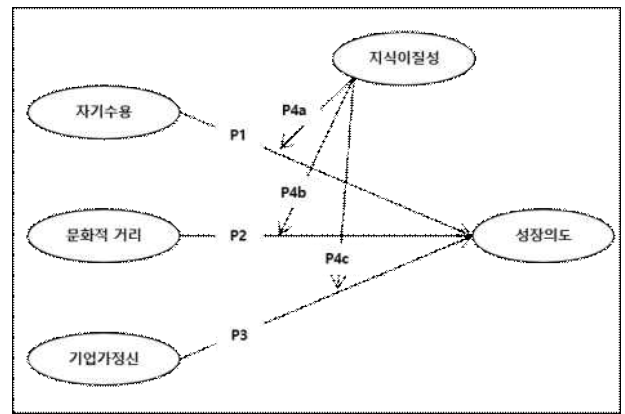
미치고 그 정도가 높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 자기수용, 문화적 거리, 기업가적 정신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게 역 U자의 관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먼저, 자기수용과 성장의도에 역 U자의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명제 4a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 문화적 거리와 성장의도에서도 지식이질성이 역 U자의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명제 4b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과 성장의도에도 지식이질성이 역 U자의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명제 4c를 설정하였다.

Proposition4a. 공동창업자간의 평균 이하의 지식이질성 정도는 자기수용과 성장의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평균 이상의 지식이질성 정도는 자기수용과 성장의도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Proposition4b. 공동창업자의 평균 이하의 지식이질성은 문화적 거리와 성장의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평균 이상의 지식이질성은 문화적 거리와 성장의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Proposition4c. 공동창업자의 평균 이하의 지식이질성은 기업가 정신과 성장의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평균 이상의 지식이질성은 기업가 정신과 성장의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상기의 명제들을 연구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으며, 지식이질성이라는 조절 효과의 경우 역 U자의 형태에 대해서 보다 쉽게 확인하고자 연구의 모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V.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국적이 상이한 공동창업의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요인을 파악하고자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창업에 관련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들에게 심층연구를 통해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층연구에 필요한 주요 질문은 5개였으며 이 질문들을 구체화하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다른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창업의 장단점과 창업가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요인, 개인적 특징 등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며 각 질문을 기반으로 분류를 하되, 전체적인 흐름과 반복과 강조한 내용을 가중하여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많이 반복되고 언급된 부분은 의사소통(상호 이해)과 신뢰 기반이었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이라는 개념을 본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기반됨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자기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자기수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이어진·최수미, 2015). 이는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수용이 이루어지고 자기개방이라는 순환적 경험의 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황성용·이경화, 2014).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볼 때 자기수용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이전에 자신이 취해야하는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희숙·이진현(2019)의 논문에서도 자기수용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요인들 중 문화적인 부분이나 기업의 성공을 위한 것으로 기업가정신 등에 대해서 언급 및 강조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적이 다른 창업가들의 공동창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여 문화적인 부분을 다른 연구가 부족하지만, 오해동 외(2016)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화도 창업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관련 요인을 이용하여 창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주로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 기업가 정신 함양과 관련된 연구, 기업가정신 교육 등에 관련된 연구로 창업가에게 중요한 기업가정신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윤대혁·박민생, 2007; 최종열·정해주, 2008; 오영미·박성환, 2014).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업가정신이 공동창업의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명제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창업의 성장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수용, 문화적 거리, 기업가정신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였으나, 그 외 에도 지식적인 차이에 따라 성장의도에 따른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을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식에 대해서 Stasser(1992)는 적당한 이질성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지식의 차이가 보통이하라면 이는 다양성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서로의 조율을 통한 이해와 배려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차이가 보통이상이라면 이는 타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한 지 1년 또는 3년 이내의 신생기업인 채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활용가능한 자원에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기업명성이 채 형성되지 않아 자금조달이 어렵고, 현지시장에서 고객의 인지도가 낮아 시장개척이 용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경쟁열위의 요인이 될 수 있다(Click & Coval, 2002). 따라서 국적이 다른 공동창업의 경우 창업기업의 성장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규명이 더욱 중요시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동창업의 성장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적 배경과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개념화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2가지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 번째, 중국인과 한국인이 공동창업을 한 경우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표본을 확대하기 위해 눈덩이표집방법을 이용해보고자 하였으나 인터뷰에 응한 창업가들도 매우 드문 사례일 뿐만 아니라 국적이 상이한 공동창업자들 간의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하여 표본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인터뷰의 표본의 수가 적다는 점이다. 두 번째, 해당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해당 명제들을 이후 가설로 세워 실증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다. 해당 연구에 대한 대상이 한국인과 중국인이 공동으로 창업한 경우로 매우 지역적이며 창업가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크기의 샘플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VI.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공동창업 중에서도 다른 국적을 소유한 창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 창업관련 연구를 대폭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창업에 대한 연구는 경영학적 시각으로 요인을 탐색하고 확인하였다면 해당 연구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진행한 부분이 최근 융합이라는 트렌드에 부흥하는 요인이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국적이 상이한 경우의 공동창업의 경우의 성장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적인 요인들을 분류하였다. 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프레임이자 명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중에서도 지식이질성이라는 요인의 조절효과와 방향성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창업관련 연구를 더 확장된 관점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다른 국적을 소유한 창업가들이 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업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가 상이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창업 시 구성원들은 처음부터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비슷해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창업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정부 및 창업관련 기관들은 단독창업 뿐만 아닌 유학생들과의 공동창업을 장려하여 기존의 창업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추어 더 많은 창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FERENCE

- 강희숙·이진현(2019). 비블리오드라마에 의한 대학생들의 자기성장 경험.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22(1), 1-12.
- 김광현·동학립(2019).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이 중소기업 핵심역량과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5), 217-232.
- 김유경(2004). 문화거리(Cultural distance)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거리 (Communication distance)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8(3), 31-60.
- 김홍(2012). 대학생의 창업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263-271.
- 남현정·임석준(2017). 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기업의 조직몰입도 향상을 위한 경영전략. 국가문화 이해도 및 권력거리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21(4), 145-165.
- 박경석·하규수(2014). 한국과 중국동포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2), 61-70.
- 박노윤(2016). 소셜벤처팀의 기업가적 학습과 영향요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19(2), 41-86.
- 박동수·구연희(2007).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이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6), 2979-3011.
- 박상환·김장기·방병노(2016).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표현이 타인관점수용과 의사소통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 경기도의 한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410-422.
- 박민·주지훈·정범구(2017). 셀프리더십 및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와 창업참여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적자원개발연구*, 20(3), 159-177.
- 배종태·차민석(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중소기업연구*, 31(1), 109-128.
- 악명·윤현진·박상문(2014).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국적과 전공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9(4), 87-96.
- 안태욱·한동희·강태원(2019). 창업가 역량 특성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지원제도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1), 73-83.
- 임전욱·장성숙(2012). 자기수용 연구의 동향과 제언. *인간이해*, 33(1), 159-184.
- 양준환(2015).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30, 25-45.
- 양준환·침희(2015). 한·중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19(4), 25-53.
- 오영미·박성환(2014). 기업가정신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14(2), 199-221.
- 오해동·최지연·노전표(2016). 개인 특성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흡스태드 문화특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2), 35-48.
- 윤대혁·박민생(2007).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4(2), 99-121.
- 이대희·진창현(2016). 한국기업의 경영혁신역량과 기업가 정신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구 동립경영연구)*, 67, 127-149.
- 이선호·서철승·이철규(2015). 창업자특성이 연구개발역량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공학학회지*, 20(3), 9-26.
- 이어진·최수미(2015). 대학생의 자기수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4), 209-224.
- 이우진(2017). *벤처창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서울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재운·오수진·김명연(2017). 누구와 창업할 것인가? 스타트업 공동창업팀 내 심층적 다양성의 필요영역. *한국심리학회지*, 30(1), 49-76.
- 이지연·현지원·최연식·이문영(2018). 공동경영자 구조와 상호관계효과: 이익조정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 55-84.
- 장혜민·김경환(2019).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최초 직장적응에 미치는 영향: 개인-직무 부합성 (PJ Fit) 매개효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2(7), 1271-1292.
- 정대용·침희(2011). 중국기업가의 창업에 대한 기대가 창업 및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2(11), 4881-4887.
- 차민규·이상명(2018). 중국 진출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분글로벌 스타트업 진출요인 연구-엑셀러레이터 지원 스타트업을 기준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869-877.
- 최종열·정해주(2008). 경영학 교육이 기업가정신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3), 213-230.
- 황성용·이경화(2014). 자기성장 창의성 프로그램이 성인학습자의 창의성과 창의적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창의력교육연구*, 14(1), 71-93.
- Ahn, T. U., Han, D. H., & Kang, T. W.(2019). The Effects of Entrepreneur Competence Characteristics on Start-Up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1), 73-83.
- Bac, Z. T., & Cha, M. S.(2009). Expanding and Revitalizing Entrepreneurship in Korea.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31(1), 109-128.
- Barriball, K. L., & While, A.(1994). Collecting data using a semi-structured interview: a discussion pap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Institutional Subscription*, 19(2), 328-335.
- Bills, R. E., Vance, E. L., & McLean, O. S.(1951). An index of adjustment and value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5(3), 257.
- Campion, A. M., Medsker J. G., & Higgs C. A.(1993). Relations between Work Team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ness: Implication for Designing Effectiveness Work Group. *Personnel Psychology*, 46, 823-850.
- Cha, M. K., & Lee, S. M.(2018). A Study on the Factors of Entering Global Start-up through Analysis of Successful Case in China-Based on Accelerator Support Startup.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 869-877.
- Choi, J. Y., & Jung, H. J.(2008). A Study On Effect Of

- Management Education To Entrepreneurship Improve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5(3), 213-230.
- Chung, D. Y., & Zhan, X.(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Expectancy of China's Entrepreneur upon Start-up Business and Growth Intention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1), 4881-4887.
- Click, R. W., & Coval, J. D.(2001)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 Colaizzi, P. F.(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D'Aveni, R. A., & MacMillan, I. C.(1990). Crisis and the content of managerial communications: A study of the focus of attention of top managers in surviving and failing fir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34-657
- Ellis, A., & Harper, R. A.(1979). *A new guide to rational living. rev. ed.* North Hollywood (CA): Wilshire Books.
- Guzzo, R. A., & Dickson, M. W.(1996). Teams in organizations: recent research on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7, 307-338.
- Haug, S. W., & Lee, G. H.(2014). The Effects of Self-Growth Creativity Programs on Creativity and Creative Leadership of Adult Learners.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14(1), 71-93.
- Hisrich, R. D., & Peters, M. P.(1986). Establishing a new business venture unit within a fir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307-322.
- Hofstede, G.(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Sage publications.
- Huang, H. C., Lai, M. C., & Lo, K. W.(2012). Do founders' own resources matter? The influence of business networks on start-up innovation and performance. *Technovation*, 32(5), 316-327.
- Jang, H. M., & Kim, K. H.(2019).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f University Students on First Workplace Adapt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J Fit.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2(7), 1271-1292.
- Schumpeter, J. A.(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London: Harper & Brothers,
- Kang, H. S., & Lee, J. H.(2019). Experience of Self-growth of University Students by Bibliodrama. *The Korean Journal of Psychodrama*, 22(1), 1-12.
- Kim, H.(2012).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63-271.
- Kim, K. H., & Dong, H. L.(2019). The Effect of Humane Entrepreneurship on the Core Competencies and Corporate Performance of SM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5), 217-232.
- Kim, Y. K.(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stance and communication dist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8(3), 31-60.
- Kirzner, I. M.(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gut, B., & Singh, H.(1988). The effect of national culture on the choice of entry mod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3), 411-432.
- Lee, A. J., & Choi, S. M.(2015).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acceptance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4), 209-224.
- Lee, D. H., & Jin, C. H.(2016). The Effect of Innovation Managerial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ship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in Korea.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67, 127-149.
- Lee, J. Y., Hyun, J. W., Choi, Y. S., & Lee, M. Y.(2018). Co-CEO Structure and Mutual Monitoring Effect: Focusing on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 55-84.
- Lee, J. Y., Oh, S. J., & Kim, M. U.(2017). Whom should you start a company with?: Exploring the component of deep-level diversity in start-up co-founding teams.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30(1), 49-76.
- Lee, S. H., Seo, C. S., & Lee, C. G.(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on R&D Capability and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Management Engineers Society*, 20(3), 9-26.
- Lee, W. J.(2017). *Status and Performance Analysis of Venture Startup Support Policy*.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Lim, J. O., & Chang, J. S.(2012). Trends and Suggestions in Research on Self-Acceptance. *Student Counseling Center of Sogang University*, 33(1), 159-184.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Nam, H. J., & Lim, S. J.(2017). Moderating Effects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Power Dista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1(4), 145-165.
- Oh, H. D., Choi, J. Y., & No, J. P.(2016).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Moderating effect of Hofstede's Cultures Dimens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35-48
- Oh, Y. M., & Park, S. H.(2014).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Start-up Intention.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4(2), 199-221.
- Oyserman, D., Coon, H., & Kimmelmeier, K.(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1), 3-72.
- Park, D. S., & Ku, E. H.(2007). An Exploratory Study on Entrepreneurship and Its Effects on the Growth

- Intention in Venture Busin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6), 2979-3011.
- Park, I., Joo, J. H., & Chung, B. K.(2019).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ship Intention: Mediated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3), 159-177.
- Park, K. S., & Ha, K. S.(2014). The Effects of Korean and Korean-Chinese'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 Motiv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2), 61-70.
- Park, R, Y.(2016). Social Venture Team's Entrepreneurial Learning and Its Influencing Factors: Focused on Social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9(2), 41-86.
- Park, S. H., Kim, J. E., & Bang, B. R.(2016). A Study on the Effects to the Communication Capability and the Accommodation of other person's Perspective for the Self Understanding, the Self Accommodation and the Self Communication-Centered on the University Students in Gungji-do and Seou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7), 410-422.
- Pelled, L. H., Eisenhardt, K. M., & Xin, K. R.(1999). Exploring the black box: An analysis of work group diversity, conflict, and performa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4, 1-28.
- Rogers, C. R. (1950). *The significance of the self-regarding attitudes and perceptions*.
- Rodgers, C. (1961).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London: Constable.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amovar, L. A., Porter, R. E., & Jain, N. C.(1981). *Understand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Schwartz, S.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6
- Stasser, G.(1992). Information salience and the discovery of hidden profiles by decision-making groups: A "thought experi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2(1), 156-181.
- Wu, L. Y.(2007). Entrepreneurial resources, dynamic capabilities and start-up performance of Taiwan's high-tech firm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5), 549-555.
- Yang, J. H.(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Contextu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0, 25-45.
- Yang, J. H., & Zhan, Xi.(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Mediating of Self-efficac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9(4), 25-53.
- Yoon, D. H., & Park, M. S.(2007).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 of Entrepreneurship of Manager in Korea.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4(2), 99-121.
- Yue, M., Yun, H. J., & Park, S. M.(201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China: Moderating effect of Nationality and Maj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4), 87-96.
- Zhou, Z., Peverly, S. T., & Lin, C. (2004). Cross-and within-cultural variation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tance, time, and speed interrelationships: A follow-up study.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5(1), 5-27.

A Study on the Growth intention of Korean and Chinese Co-Founding Startup Companies

A-Hyun Kim*
Jun Hwan Moon**
Jae Bum Lee***

Abstract

Because individuals come together to form a society, society has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or similar. Furthermore, as globalization and language acquisition in other countries have been activated, the frequency of studying abroad has increased. While Korea also studies abroad, the number of students coming to Korea from other countries continues to increase, increasing. In particular, when there was interest in start-up businesses, the factors were discovered through exploratory research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growth in start-ups when they had different nationalities. In order to conduct exploratory research, the government wanted to check more in-depth information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co-founder companies composed of Koreans and Chinese.

The main keywords were repeated or emphasized continuously during the interview, and other keywords were obtained through additional questions.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self-acceptance, cultural distance, entrepreneurship, knowledge quality and growth are very large keywords in the co-founding start-up of different countries. The proposition was established as having a relationship of justice with self-acceptance, cultural distance and entrepreneurship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with the degree of growth as dependent variabl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o-founding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the most important knowledge quality was represented the effect of reverse U in each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cceptance, cultural distance, entrepreneurship and growth).

Keywords: co-founding, Self-Acceptance, Cultural Distance, Knowledge difference, Growth Intention, an entrepreneurial spirit

* First Author, Ph.D student, Sogang University, ahyunk@sogang.ac.kr

** Corresponding Author, Ph.D, Sogang University, jhmoon1106@sogang.ac.kr

*** Co Author, Professor, Sogang University, jblee@sogang.ac.kr